

## 다가구 임대주택 현장방문

임대주택을 지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. 땅이 넓은 곳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. 도심지는 더 지을 데가 없습니다. 내가 종로에 살았는데 다가구가 많은 곳입니다. 선거 때 가보면 다가구에 안 살려고 합니다. 집값이 올라가는 않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. 매입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내가 이 사업을 지시해놓고 보니 서울시에서 하다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. 좀 다르게 해서, 한번 실패한 원인을 잘 분석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좀 어려워도 사람 많이 사는 도심서 사는 게 변두리 보다 일자리도 많습니다.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 다가구를 짓다가 좀 가서 아파트로 가면 다가구도 한물갑니다.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집으로 계속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잘 한번 살아봅시다. 주공이 밀리지요? 본전은 됩니까. 정부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. 서울에서 절반이 세를 살지요? 자기 집이든 남 집이든 주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30%에 이릅니다. 10채 중 3채가 최저기준에 미달합니다. 여기는 최저기준에 들어갑니까. 되도록 덜 밀지게 정부 부담이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맘 먹고 해 봅시다. 매입 임대주택이 나중에 남으면 국가재산이니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연결된 집을 모아 재개발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합시다.